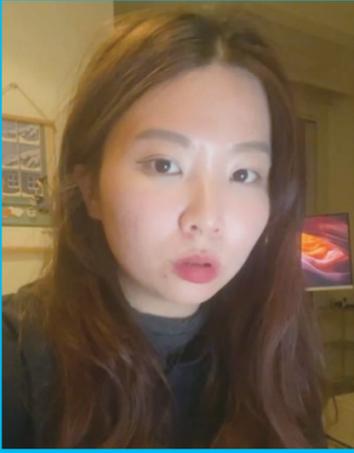


광주사람들



지민주(스타벅스 직원)

천인보(583/1000)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어학 연수를 준비 중인 지민주입니다. 저는 현재 스타벅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매장은 전남에 있는데, ‘메가 매장’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매출 ‘탑’을 찍는 곳 중 하나입니다. 도심 밖의 스타벅스는 근무 인원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계약했던 시간보다 연장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많지 않아 1인당 맡은 업무가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학연수를 결심하고, 관련 정보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꿀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학연수 정보를 찾아 보면 광고가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추천하고 싶은 기관이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해외 취업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다양하고 안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2년은 제 마음의 소리에 많이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학연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다른 걸 준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거창하게 계획하기보다는 저에게 집중하고, 저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하고 싶습니다. 어학연수를 가게 된다면 내년 8월 안에는 갈 계획입니다. 변덕이 심한 저이지만, 광주는 희한하게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광주만이 질리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광주란 한결같이 생각나는 도시입니다.” **광주비 기자** jubu.kang@jnilbo.com

“신인다운 패기로 도전...데뷔전 치르겠다”

전유상·유진홍, 전남드래곤즈 2024시즌 신인 입단

전, 차범근축구상 수상 재원 유, 측면 수비수로 공수보탬



전남드래곤즈와 2024시즌 신인 계약을 체결한 전유상(오른쪽)과 유진홍이 홈구장인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전남드래곤즈가 2024시즌 신인으로 선택한 공격수 전유상(19)과 유진홍(23)이 프로 무대에 연착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두 사람은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팀 훈련에 합류해 내년 1월8일 시작하는 태국 방콕 1차 전지훈련 준비에 나섰다.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전남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일본 류쓰케이이치대를 거쳐 프로 무대에 입성한 유진홍은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 측면 수비수다. 적극적인 드리블 시도와 정교한 크로스가 강점으로 공수에 모

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유진홍 역시 구단을 통해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해 기분이 남다르다”며 “2024시즌에 반드시 K리그 데뷔전을 치르고 싶다. 전남 팬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보해장학회, 지역인재 장학금 5200만원 전달

지역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2023년 보해장학회 장학금으로 총 5200여만원을 기탁했다.

보해는 최근 목포 대안동 부근 본사에서 보해 관계자 및 장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보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사진)

보해장학회는 목포 아동원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추천을 받아 장학금 수여자를 선정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15명의 학생들에게는 총 1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보해는 지난 7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맞아 전남체육인재육성 장학회에 5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 중 3500만원은 올해 장학생들에게 전달됐고, 1500만원은 내년 체육 인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보해는 보해장학회를 통해 기업이윤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업 정신에 따라, 1981년 장학재단 설립 후 올해까지 총 42년간 지역 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보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누적인원은 3912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37억 4390만원에 이른다.

보해 관계자는 “보해장학회는 교육 기회 균등 실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테크노파크, 이웃사랑 실천 나눔행사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이웃사랑실천을 위해 ‘광주지역 활! 활! (기업살고! 지역살고!)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

이번 행사는 최근 우리지역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지역 각계가 힘을 모아 극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리 지역 마을노인복지관 등 중장년·노인복지 유관기관 등에 620만원 상당의 대우위니아 김치냉장고 7대를 기부했다. 또 광주TP 임직원은 우리지역 생산제품을 구매해 소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영집 원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기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사랑 나눔 선두주자로서 나눔문화 확산·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박용욱 전 빛고을전남대병원장 후원금 기탁

제5대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한 박용욱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전남대병원에 발전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2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안영근 병원장, 박창환 진료부원장, 김영민 사무국장을 비롯한 박용욱 교수, 서순팔 전남대의 명예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박 교수는 “최근 모진상을 겪으며 전남대병원과 직원들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병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전임 빛고을전남대병원장으로서 훌륭하게 병원을 이끌어주신 것도 감사드린데 후원금까지 기탁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며 “소중한 후원금으로 병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성금기탁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장흥군 관내 소외계층에 117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제공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전일 게시판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알코올·인터넷·도박·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을 위한 무료상담 및 교육 실시 (062)526-3370

알림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

날씨와 생활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and times.